

△ 2000년도 표어 △

균형이룬 교회 되자

순복음 Life

제2호

발행일 2000년 12월 3일

발행인 : 한승권

편집인 : 김미진

편집처 : 문서발간위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중앙교회 ☎ 343-800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162-1
http://www.djfgcc.pe.kr ✉ hagape@netsgo.com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겸용)

<11월의 기도>

종의 길

전도사 윤희자

가도 가도 멀기만 한 길
가시밭길처럼 갈수록
상처만 나는 길
길고도 머연 길

평생 님의 사랑
가슴에 품고 가는
종의 길

눈물도 삼키우고
웃음도 삼키우고
옥합을 깨어뜨린
여인처럼.....

그저 묵묵히 가는
사명의 길

세상에 빛을 뿌리신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생명
그와 같은 사랑이
내게도 있고 싶어.....

오늘도 좋은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육아상식

- 유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 - (편집부)

셋째로 ... 규율을 정하고 부드러운 절차로 규율을 지키게 한다.

아이들에게 있어 규율은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규율은 아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림과 곁들여 적어 놓을 수도 있고 평이하게 말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규율을 말해줄 때엔 벌이나 나쁜 사람에 대한 좋지 못한 것들을 언급하여 위협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규율의 정당성과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 규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로 ... 위협하지 않으며 라포를 형성한다.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꾸지람을 가하는데 있어서도, 주의하여야 한다. 어린아이들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심한 벌이나 꾸중을 받았을 때 마음에 상처를 받기 쉽다.

그래서 유아를 꾸짖은 뒤에는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라포를 형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너무 확 풀어주면 다시 통제하기 어렵게 되므로 편안한 상태에서 적정 수준의 긴장을 지니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 아동에게 관심과 배려를 충분히 보여야 한다.

아이의 어떠한 행동에 관심을 보이고 그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아이와의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아이가 잘했을 때,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는다. 교육은 유아의 마음을 이해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유아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둘 사이에 공감 있는 관계가 형성되며, 그리하여 아이와 부모간에 참된 교육적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생활상식

이종희성도

♣ 손에 묻은 기름때를 지우려면

비누로 손을 씻은 다음 설탕을 손에 문혀서 몇 번 비비면 기름때가 모르는 사이에 깨끗이 빠진다.

♣ 페인트 냄새 제거하는 법

접수리를 하고 나면 페인트 냄새가 빠지지 않아 불쾌하고 머리가 아플 때가 있다. 환기를 시키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항상 창문을 열어둘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이럴 때는 양파를 잘라서 방에 두면 두 가지 냄새가 서로 중화되어 페인트 냄새가 사라진다.

♣ 방바닥에 깨진 유리가루가 묻어 있을 때

전구나 거울 등을 잘못해서 깨뜨렸을 경우에는 유리가루가 방 구석구석까지 흩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빗자루로 대충 쓸어낸 다음 탈지면을 주먹만 큼 뭉쳐서 바닥을 닦아낸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 가루까지 깨끗이 흡수되어 안심할 수 있다.

♣ 젖은 우산을 세워놓는 방법

젖은 우산을 세워놓을 때 흔히 우산의 꼭지를 아래로 향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꼭지 부분에 빗물이 고여 우산살이 쉽게 녹슬게 되므로, 반대로 손잡이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는 게 좋다. 또 우산 손잡이가 끼워질 부분에다 무명실을 칭칭 감고 그곳에 접착제를 듬뿍 발라 꽂아두면 다시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 그물석쇠 때, 가스레인지 기름 없애는 법

때가 묻은 구이용 그물석쇠를 가열한 후 알루미눔 호일을 구겨서 문지른 다음 물로 씻어내고 다시 한번 가열한다. 튀김 할 때 기름이 묻은 가스레인지는 그 주변에 밀가루를 골고루 뿌린 다음 천(반드시 건조된 것)이나 키친 페이퍼로 닦는다.

알뜰살뜰 “아나바다”

▲ 물품 1 : 아기띠 .. 사용기간은 일년, 색상은 자줏빛, 금액은 1900원, 상태는 아주 양호 몇 번 밖에 사용 안 함.

■ 물품 2 : 벨로아 곤색 상하.. 2~3세의 유아 것. 금액은 1000원

◆ 물품 3 : 보행기신발.. 두 번 신겨 보았음. 금액은 500원, 색상은 연한 핑크빛.

이번 아나바다는 김보경 권철님이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구요.

물품 받고 있으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연락 전화 353-4515(김미진) 353-3516(이종희)

생명의 양식

제목 : 추수감사는 이렇게

성경 : 창 4:1~15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절기의 수장절입니다. 셋째, 청교도 신앙인들의 감사제입니다.

세계적인 미국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선조들의 신앙으로 건국된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최강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통령 선거는 43대인데, 42명의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었으며 1명만 카톨릭 신도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오늘날에도 국가의 큰 고비를 기도로 이겨낸다고 합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추수감사절을 바람직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증거하겠습니다.

1. 절기는 잘 지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절을 잘 모르고 또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반응도 없고 가정의 축복도 모른채 행사 정도로만 지내고 맙니다.

첫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은혜와 축복을 되새기며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절기입니다.

둘째, 즐거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축복을 생각한다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은 것을 거둘 수 있음에 대한 기쁨이 있고, 서로의 잘됨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이웃과 더불어 함께 지내야 합니다. 나의 풍부함을 나누어 소유한다는 의미를 말하며, 하나님의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올 추수감사절에는 한 가정을 내 집에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하나님께 같이 감사 드리기를 바랍니다.

2. 감사의 예물은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벨이 형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 믿음으로 드려야 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이며 하나님을 향한 삶의 신앙고백입니다. 억지로나 형식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처사입니다.

셋째, 소산의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이 농경시대는 아니지만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자신의 모습으로 드려야 합니다.

넷째, 예배와 함께 드려야 합니다. 바쁜 세상이라 때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감사예물만 드리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1년의 감사예배를 세상 일로 인하여 지나친다면 그 예물이라 할 지라도 마음과 믿음 그리고 정성은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

때론 가족의 이름으로 드러지는 예물이 있기는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예배에 동참시키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다섯째, 정성을 다해 풍성하게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애중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3. 내년의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진 것’보다도 ‘주어질 것’이 더 큰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 소산의 예물을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

우리들도 올바르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일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을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올 추수감사절은 어느 해보다 은혜와 축복이 많아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함께 보내는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Q & A

Q :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요?

A : 모든 사람이지요. 죄인이 오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의로울 때 교회 출석을 말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말이며, 핑계적인 것에 불과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메시야입니다.

신앙서적을 읽고서

제목 :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 : 찰스 셸돈

맥스웰 목사님은, 가난 때문에 아내와 하나밖에 없는 자식마저 잃고 일자리도 없이 좌절과 슬픔에 잠긴 인쇄공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맥스웰 목사님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실제 생활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된다. 그 후 그 인쇄공이 요절하는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맥스웰 목사님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란 질문을 던지면서 삶의 매순간을 책임지기로 각오한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교인들에게 같은 질문으로 도전을 준다. 이에 감동된 교인 수십 명이 앞으로 1년간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다. 이런 실제적인 헌신의 삶이, 사랑의 파문을 일으킨다.



주님의 뜻대로만, 말씀 그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행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신이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는 평안의 감정은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거하게 한다고 작자는 이야기한다.

내가 처음 이 책을 대했을 때, 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흥분과 기쁨이 채 가지지 않았을 때였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예쁘게 보일까? 하는 조금은 알맞은 생각을 기분 좋게 하고 다녔었다. 순간 순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뭐가 선이지?'를 궁금히 여기곤 했었다. 이런 내게 전도사님은 이 책을 읽어보길 권해 주셨고, 난 제목부터가 썩 맘에 들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난 예수님의 선한 뜻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야 알았지만, 그 때에 내 안의 성령님께서 온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내 양심에 떳떳했고, 내 자신 뿌듯했음으로 알 것 같다.

세상이 생각날 때, 혹은 자포자기 하게될 때,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글 : 이종희 성도>

성경과학

- 베들레헴의 별 -

제공 : 김미진집사



몇몇 대규모 천문관에서는 예수님 탄생시 나타난 베들레헴의 별이 자연현상이었음을 증명하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그 별이 신성(新星), 또는 초신성이 아니면 혜성들이 중첩된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입증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천문학적 사건들이 있었다고 알려진 때는 예수님 탄생 연대와 일치하지 않으며 설사 일치한다 하더라도 이 놀라운 사건을 자연현상만으로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는 없다. 혜성들이 중첩되었다는 생각을 받아들인다 해도 많은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해도 계산상으로 베들레헴 상공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더구나 천체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지 않으며 특정한 곳에 머물러있지도 않는다. 베들레헴에 나타났던 별은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구름기둥으로 성막 위에 머물렀던 하나님 임재의 영광(Shekinah glori) 과 비교할 수 있을만한 기적이었다.

「유대백과사전(Encyclopedia Judaica)」에는 「셰키나(Shekinah)」를 "거함" 또는 "안식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뜻한다. 랍비 문학에서는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 빛과 관련짓는데 구약에도 이런 의미의 구절이 많이 있다. 탈무드에서도 「셰키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정의한다. 에스겔 43장 2절에서는 빛을 하나님 임재의 영광과 관련지어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라고 기록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는 같은 내용이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고 표현되어 있다. Kittel의 「신약 신학 대사전(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에는 영광이란 단어의 어원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희랍어의 「독사(doxa)」라는 말은 신의 임재 또는 출애굽기 33장9~23절에서 모세가 보았던 광채를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송영(doxology)"이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희랍어의 「독사(doxa)」에서 유래한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들레헴의 별을 말할 때 「독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누가복음 2장 9절에서는 "주의 영광(doxa)이 저희에게 두루 비취매" 라고 기록하였다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비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누가복음의 기록으로 볼 때 베들레헴의 별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적으로 현현(顯現)된 것이라는 설명이 가장 타당한 듯하다. 그것은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기적이었다. 더욱이 이 베들레헴의 별을 "그의 별"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평범한 별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뜻 : 위로

- 1) 아담의 8세손
- 2) 레멕이 182세에 낳고 노아라 이름하니 뜻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이 아들이 위로한다 하는 뜻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실 표적이다 (창 5:28).
- 3) 시대가 악하여(눅 17:27) 홍수로 진멸하시고자 하실 때 오직 노아만이 의로운 고로 방주를 만들고 피하라고 미리 지시하였다.

120년간 방주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간 후 40일 동안 비가 내려 창수가 나서 지상의 모든 산을 넘쳐 방주밖에 있는 생물은 다 죽어 버렸다. 5개월 후부터 물이 줄기 시작하여 7개월만에 완전히 물이 빠지니 꼭 1년 10일을 방주에서 살았다. 방주가 머문 산은 5,185미터의 아라랏산이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기로 약속하시고 그 표로 무지개를 주셨다.

노아는 홍수 뒤에 350년을 더 살아있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950 세에 세상을 떠났다. 홍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부부, 아들 셋, 며느리 셋 도합 8명이었다 (창 9:).

그림 : 노아의 대홍수

지구의 신비 : 대홍수 입증

기독교학자들은 지구상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각종 화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입증한다. 다지층나무화석이 그 한 예다. 다지층나무화석은 커다란 나무가 몇 개의 지층에 걸쳐 화석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미국 테네스주에서 발견된 래피도덴드리드나무도 그중 하나다. 이 나무는 6m의 길이로 여러 퇴적암 층을 관통해 뻗어있다. 진화론에 의하면 몇 개의 지층이 형성되려면 엄청난 세월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나무 화석은 그 세월을 무시한 채 세로로 세워져있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일시적인 지각의 변동으로 나무가 지층을 뚫고 화석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변동이란 홍수를 뜻한다고 한다. 북부 시베리아 해안을 따라 알래스카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에는 약 5백만 마리의 맘모스 시체가 매장돼 있다고 한다. 이들 맘모스가 짧은 순간에 파묻혔다는 증거가 많이 있으나 특히 위와 입 속에서 채 소화가 안된 녹색식물, 야생콩 등이 발견된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한다. 일부 진화론자들은 이를 두고 먹이를 취하려다 강이나 절벽으로 떨어져 죽은 것이라고도 하지만 5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추락했다는 가정은 현실성이 없다.

결국 맘모스의 떼가 대홍수에 의해 순식간에 멸망됐다고 생각하면 의문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다.

미국 남다코라주 블랙힐즈에 있는 불가사리와 똑같은 점에서 창조론을 뒷받침한다고 이야기 되어진다. 즉 전혀 진화한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홍수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창조가 입증되면 홍수도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학자들은 이를 자료로 사용

한다. 네브래스카의 화석지층에서 발견된 코뿔소 낙타 멧돼지 등 9천여 마리 동물들의 뼈 화석은 석회암 언덕에 길게 뻗쳐 있어 분명히 물로 인해 묻히게 됐음을 입증한다고 한다.

텍사스의 파룩시강에선 겁질을 담은 상태인 조개와 보통의 경우 화석이 되기 힘든 벌레들의 화석이 발견됐다. 어떻게 이런 생물들이 화석으로 됐을까. 이것도 대홍수사건을 인정해야만 의문은 풀리게 될 것이란 주장을 기독교학자들은 펼친다. 대규모 홍수에 휩쓸린 침전물들이 덮쳐 급격히 화석화 됐다는 것이다.

주) 벌레 - 벌레



그림 : 길가메쉬 서사시 : 아시리아어로 기록된 서사시의 11번째 토서판으로 바벨론 홍수를 담고 있으며 BC 7세기의 것이다.

즐거운 삶



<김경호성도>

사람은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아마 지구상에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즐겁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이다. 즐거움은 돈으로 살수도 없고 권력으로 얻을 수도 없다. 오락 또는 여행 등으로 일시적으로 느낄 수는 있으나 그 즐거움은 오래지 못하다. 영원한 즐거움을 얻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돈도 힘도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 즐거움은 마음 갖기에 달렸다.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하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얻어진다. 사람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코자 한다. 노력 이상으로 성과를 기대하니 실망도 커진다. 긍정적 사고는 즐거움, 행복감, 감사의 마음을 얻게 해 준다. 부정적 사고는 불평불만을 낳고 불행을 초래한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대자연, 국가, 사회, 부모님, 형제자매 등의 고마움을 알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함뿐이다.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골절상 환자만 약간 있었을 뿐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

"왼팔만의 골절상 당함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양다리가 절단되어 평생 불구작가 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입어 왼팔만의 골절상 당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병원생활을 하니 비록 왼팔은 불편하나 마음만은 편했다.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며 병원 생활을 하니 어찌 회복이 빠르지 않으랴!! 감사하는 마음은 어느 명의의 치료보다도, 값비싼 양약보다도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짧은 병원 생활을 끝내고 다정한 가족들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음은 감사하는 마음의 힘이 큼이라.

자존심을 버리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3체를 좋아한다고 한다. 없어도 있는 체하며, 몰라도 아는 체하고, 또 잘 난 체하려 한다.

한자에 위 상(上)자와 아래 하(下)자가 있다. 이 두 글자의 뜻은 아주 정반대이다. '위' 와 '아래' 이다. 두 글자의 모양은 (一) 와 (ㄱ)로 이루어져 있다. (一)의 위치에 따라 상자와 하자가 된다. (一)가 아래로 가면 상자가 된다. 상자는 최고를 나타낸다. 제일 높은 자리를 상석, 제일 좋은 물건을 상품, 수가 높은 사람을 상수라 한다. 모든 사람의 동경의 대상이다.

반대로 (一)가 위로 가면 하자가 된다. 하자는 최하를 의미한다. 하인, 하품, 하수 누구나 싫어하는 것들이다. 위의 경우를 사람에게 비유해 보면, 사람이 자기(一)를 높이려고 뽐내며 3체를 좋아하면 하자가 되어 남에게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된다. 반면 자기 신분을 낮추려고 내려가면 남들이 우러러보는 상자가 되어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내 몸을 낮추면 낮출수록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며 내 몸을 스스로 높이려면 오히려 천대받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긍정적 사고로 매사에 감사하며 자존심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즐겁게 살아가리라 믿는다.

⇒ 4면에서 계속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헬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 2장 1,2절) 위에서 지적했지만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의 기록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거의 대부분의 성탄절 행사에서는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이 같은 시간에 아기 예수를 방문한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갓난아기(babe)"를 보았고 (누가복음 2장 15~16절). 박사들은 집에 있는 어린아이(young child)"를 보았다(마태복음 2장 11절)고 기록되어 있다. (한글판 개역 성경에는 둘 다 아기로 되어 있으나, 여러 영어 성경에는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음/역자 주).

처음으로 교회 가던 날 성전 안에 십자가를 표현한 국화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성전꽃꽂이를 사모하게 되었고 마음속 깊이 십자가로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에 그 마음에 소망을 이루게 되었고 저는 꽃꽂이를 통하여 생각과 마음이 온유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 어린 시절은 어두웠고 불안했고 늘 무서웠습니다. 세상에 아름답게 생각되는 것이 내게는 하나도 없었고 특히 꽃이 활짝 피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꽃잎을 한잎 두잎 떼어서 버렸고 발로 지근지근 밟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참으로 순한 양 같이 행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것을 무너뜨리고 싶었고 아무런 소망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성전꽃꽂이 직분을 주실 때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였습니다. 한편으론 감사했고 한편으론 걱정이 가득했지만 잠 못 이루고 근심하면서 아름다움과 살아있는 꽃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잔잔히 흘러내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며 헌신하였습니다. 꽃을 만질 때마다 제 마음은 기쁨과 평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던 어두움이 밝게 되었고 나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가장 아름답고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길가에 늘 사람들에게 밝히는 들꽃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비로써 꽃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 변화되었고 온화한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알게 되었고 한줌의 흙 냄새까지도 고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꽃을 통하여 내 인생의 행로가 바뀌게 되어 지금은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땀흘리며 흙 속에 묻혀 살고 싶은 것이 앞으로의 큰 소망입니다. 또한 제단꽃꽂이를 주님께 드리고 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영적 상태를 꽃으로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몇 자 적을까 합니다. 저는 환상을 보지는 못하지만 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충만할 때 오브제화기예다 가장 아름다운 흰꽃으로 아름답게 신부를 맞이하는 꽃을 꽂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99년도에는 부활절 꽃꽂이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꽃꽂이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부활 꽃꽂이는 참으로 어렵다고 하시면서 잘 꽂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노란 금어초 세 송이가 들어가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꾸고 잊어버렸는데 며칠 후 꽃꽂이하는 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노란 금어초 꽃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그 큰사랑으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몰라서 주님께 감사하며 물질 드러 헌신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부활주일에도 이상하게 3일간 꽃꽂이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첫 날에는 노란 꽃으로 오브제예다 아름답게 꽃을 꽂는 꿈을 꾸었구요.

이틀 날에는 한 주간 쓰고 남은 백합꽃을 한 송이를 땅속에다 심은 꽃이 고구마 줄기가 되는 꿈을 꾸었구요

삼일 날에는 빨간 카네이션을 눈에다 모심기하듯 심는 꿈을 꾸었지요. 그래서 은혜가운데 물질 드러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꽃꽂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 찾아오셔서 십자가 바로 밑에다 오브제예다 참으로 아름답고 구하기 어려운 꽃을 꽂는 것을 저는 권사님 옆에서 보조하는 꿈을 몇 번 꾸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제단의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 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꽃은 내 생명과도 같습니다. 꽃은 나와 주님과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입니다" 라고요. 제 손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나의 삶 자체가 온화한 사랑으로 바꾸어주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 앞에 꽃으로 헌신하며 살 것이며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꽃꽂이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 사역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삶 속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불타는 듯 근사한 옷의 산들은 자못 유혹적입니다. 그런데 난.....
내 삶을 잠시 접어두고 누군가가 어딘가를 다녀오자 하면 '롤루랄라' 잠시 다녀 올 수 있는 곳
차 한잔과, 바다를 볼 수 있는 곳

행당도, 서해대교를 소개합니다.

11월 10일에 개통한, 총 길이 7천 3백 10m의 국내에서 가장 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11번째로 긴 기록을 세웠다, 이 다리로 인하여 서울까지 1시간 10분에
갈 수 있다. 신평면 행당도는 오는 2004년까지 약 17만 4천명 규모로 휴게소와 해양생태공원,
체육시설 등의 레저타운이 들어설 예정.

바로 우리 고장의 이런 다리가 생긴 것의 자부심을 느낀다

@ 알아두면 좋아요 @

대교위에 차를 세워두고 바다를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고위험이.....
다리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습하여 빙판이 우려되오니 날씨가 추워지면 조심하여
운전하세요, 이번 3중 추돌 사고가 난 것도 다리난간에 차를 세우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들 합니다.



성
도
의
맛
자
랑

<탕평채>

고급스러움과 시원하면서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주재료 =

육...1모 쇠고기...50그램 미나리...30그램 김...2장 간장...3큰술
참기름...2분에 1큰술 설탕...1큰술 식초...1큰술

= 만드는 법 =

- 1: 육은 굵게 채쳐 주고 미나리는 깨끗이 다듬어 씻은 후 5cm 길이로 썰어
둔다
- 2: 쇠고기는 굵게 채쳐 간장, 설탕, 깨소금, 참기름 파와 마늘 다진 것 등을
넣고 볶아둔다.
- 3: 김은 그대로 구어 굵게 부수어 둔다
- 4: 육, 쇠고기 볶음, 미나리는 함께 섞고 양념으로 살살 무쳐 간이 골고루
들게 한다
- 5: 김 부순 것과 식초를 넣어 맛을 툇구고 그릇에 담아낸다
고명으로 지단채나 실백을 얹어 내기도 하고 갖가지 재료를 보기 좋게
담고 양념장을 곁들여 내어 먹을 때 무쳐 먹도록 해도 좋다. 보기 좋게
담기 위해 당근, 물 쑥, 숙주나물 등을 살짝 볶아 담아 내어도 좋다.



제공 :
김홍분권찰

이달의 교회 움직임

1. 주수감사절 찬양대회

- * 일시 : 11월 19일 오후 5시
- * 참가비 : 개인 3,000원
가정, 팀 5,000원
구역 10,000원
- * 방법 : 1인 2회까지만 출전
- * 제출 : 출전 곡 2부 제출

2. 기관임원 세미나

- * 일시 : 11월 20일 오후 7시
- * 누가 : 각 기관 신규임원
- * 주제 : 기관 운영방법과
임원사역

3. 성경쓰기

- * 일시 : 11월 1일~
12월 10일
- * 범위 : 예레미야 1~52장

대중문화 때문에 기독교가 몰리고 있다.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주일학교는 세상에서 제일이요, 주일학교 문화는 이 땅의 아이들에게 신앙의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따라오게 했던 최고의 문화였는데 어느새 위치가 역전되고 순서가 바뀌어버렸다.

문화를 얘기하지 않고도 기독교를 전할 수 있었는데 이전 문화 때문에 기독교가 몰리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비롯이라도 하듯 텔레비전에서는 마녀나 오멘, 무당 같은 영화를 방영하고 잘못된 기도원의 실태를 여과나 해석없이 내보내는가 하면 미스터 마릭이 나와 피라미드를 설치하고 오늘의 온세, 환생한 아이 이야기, 폭력과 선정에 싸인 뉴에이지 만화영화, 광란의 십대 쇼, 허물어져 가는 연속극 등등.

극장에서는 한 수 더 떠서 온통 죽이고 벗기고 울리고 때리는 영화들 마침내는 주라기 공원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가능성의 위협까지.....

성경을 가지고 자욱으로 가라는 사탄적 록 음악, 차라리 나를 죽여 달라는 허무의 음악, 일초에 24Bit까지 가는 급템포의 랩 댄스 음악.

미쳐가고 있다. 세상이 젊은이들을 담보로 한 채 미쳐가고 있다.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미치지 말아야 하는데 교회가 대책을 예기치 못하고 있을 때 덩달아 휩쓸려 가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청소년이 젊은이가 사라져 간다. 집사 권사 장로 가정의 아이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에 미쳐가고 전자오락에 미쳐가고 영화나 비디오 컴퓨터 심지어 세상의 초등 학문에 미쳐가 교회 빠지기를 밥먹듯 하고 있다.

대중문화가 기독교를 비웃고 있다. 반기독교 친사탄적인 프로그램이 버젓이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나와 천만 명이 넘는다는 이 땅의 기독교인을 비웃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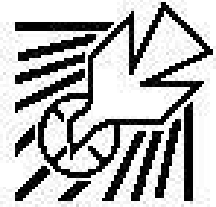
갈 때까지 가서 아이들의 영혼을 후려치겠다는 태도이다. 미션 스쿨은 점점 일반화되어가고 교회학교는 숫자를 잃어간다. 돈과 재미와 폭력과 살인이 춤을 춘다.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이제는 문화를 얘기하면서도 교회교육에 관련한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느낌이다 더 늦기 전에 문화를 얘기해야 한다.

박순남집사



뉴에이지의 심볼 - 유니콘



10대 자녀를 둔 부모가 빠지기 쉬운 함정 10가지

1. “너는 아빠의 꿈이고 엄마의 희망이다. 그래도 너 때문에 내가 산다” 그 결과 자녀는 희생양이 되고 만다.
2.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 결과 자녀들은 절음발이 인생이 되고 만다.
3. “엄마, 아빠가 시키는대로 해라. 다 너를 위한 것 아니냐” 그 결과 자녀는 마마보이가 될 것이다.
4. “너는 몰라도 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 결과 자녀들은 미숙아가 되고 만다.
5. “지금은 성(性)에 눈 뜰 시기가 아냐. 나중에 저절로 알게 돼” 그 결과 자녀들은 흠쳐 배우게 되고 비똥어진 성의식의 희생양이 된다.
6. “네 친구들은 어째 다 그 모양이냐? 개한테 배울 게 뭐가 있니?” 그 결과 자녀들은 열등생이 되고 만다.
7. “세상은 절대 믿을 게 못 돼” 그 결과 자녀들은 부정적 세계관의 소유자가 되고 만다.
8. “뭐니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 없이 되는 것 봤냐?” 그 결과 잔들은 돈의 노예가 된다.
9. “엄마, 아빠는 이래도 너희들은 이러면 못 써” 그 결과 자녀들은 이중 인격자가 된다.
10. “이제 끝났어. 뭘 하겠다고 그래. 더 이상 시간이 없어” 그 결과 자녀들은 비관주의자가 되고 인생 실패자가 된다.



Musical score for '주님께 감사' with lyrics and chord symbols (A, E7, A, D, E, A, B7, E, C7, F#7, AVE, D, A, E7, A).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영접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분가 의장 미꽃 감사 장미 꽃 가시 감사
 지난 추억인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해져 줘서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파스한 파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향기로운 보혈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오쁨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픈 평안음 감사
 사랑 진땀 물도 감사 나외 영혼 평안 해
 좌양 무릎 온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해
 노음 의회 땅을 감사 영원 투로 감사 해

이행시

=> 멍게 <==

● 멍 : 멍게야~놀자!
 게 : 게랑 놀아!

말없이 사랑하여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가 한 것처럼 아무말 말고
 자주 겹으로 드러나지 않게 잠자코 사랑하여라
 사랑이 깊고 참된 것이도록 사랑하여라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봉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여라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우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꾸지람을 듣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마음 상하는 이야기에든 말대꾸하지 말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네 마음을 사랑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도록 하여라
 그 왕국을 타인에 대한 자상한 마음으로 채우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사람이 너를 가까이 않고 오히려 멀리 떼어버려
 따돌림받을 때 말없이 사랑하여라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받아들여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오해를 받을 때 말없이 사랑하여라
 사랑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으면서.....

스플 때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주위에 기쁨을 알리며 사람의 행복을
 더해 주도록 마음을 써라
 인간의 말이나 태도로 인해 초조해지거든
 말없이 사랑하여라

마음 저 밑바닥에 스며든 괴로움을 이내로 쉽게 바쳐라
 네 침묵 속에 연한이나 이내로 잡지 못한 마음
 또한 심한 비판이 기어들지 못하도록 하여라

언제나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마음을 써라

*** 대합 ***

● 대 : 대합야 시끄러워
 합 : 합주기가 됩시다 합!

11월의 새익구

1. **배병철집사** - 송산면 무수리
바울남선교회 영광구역
전도자 : 본인
2. **홍성아집사** - 송산면 무수리
한나여선교회 온유구역
전도자 : 본인

교인동정

1. **이사** - * 백청심집사 : 인천시로
이사일 : 12월 4일
* 현덕규집사 : 채운리
지석APT 103동 105호
2. **목사님 중국선교**
11월 27일~12월 2일

교회동정

1. 가을대심방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습니다.
2. 각 기관에서는 총회를 마치고 2001년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11월 29일부터 김장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 12월중 교회행사

1. 제직세미나 - 12월 18 오전 11시
 2. 성탄절 이브 축하제 - 12월 24일 오후 5시
 3. 찬양을동발표회 - 12월 19일 오후 4시
 4. 성탄절축하예배 - 12월 25일 오전 11시
 5. 교회학교 졸업예배 - 12월 31일 오후 7시
 6. 송구영신예배 - 12월 31일 자정
- * 신년축복 안수기도회

예배 및 각종 모임 안내

	대상	요일	모임	시간	비고
예배	장년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1시	
		"	저녁 예배	오후 7:00(11월~4월) 오후 8:00(5월~10월)	
		수요	저녁 예배		
			아침 예배	오전 11시	
	금요	구역 예배	각 가정에서		
	주교	주일	오전 예배	오전 9시	2001년 실시
		"	오후 예배	오후 3시	
	학생	토요	성경공부	오후 5시	문화활동 있음
		주일	정기 예배	오후 5시	2001년 실시
청년	토요	정기 예배	오후 7시	2001년 실시	
	장년	금요	철야기도회	밤 9시	
기도	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시		
	교육	장년	목요	초신자양육	오전 11시
목요			새신자훈련	오후 1시	1일
화요			평신도훈련	오전 11시	통신반있음
화요			구역장공과	오전 6시	
화요			제자훈련(초급)	오후 1:30	통신반있음
화요			제자훈련(중급)	오전 9:30	통신반있음
화요			제자훈련(고급)	오전 9:30	
주중			일대일양육	정한시간	가정, 직장
목요			영적성장세미나	오전 11시	분기별로
수요			교사대학	오후 1시	현직 교사
모임	성가	주일	연습	오전 10시	오후 12:30
		토요	연습	오후 5시	
활동	을동선교단	수요	1기(레마)	오전 10시	연습
			2기(살롬)	오후 1시	
		토요	3기(셀라)	오후 5시	
	찬양선교단	연습	매주 화, 목	오후 7시	
	컴퓨터	월요	컴퓨터교육 및 작업	오후 5시	컴퓨터팀
화~토		컴퓨터교육	오전 10시 ~ 오후 9시	PC방 운영 교육생	

▲ 신나는 퍼즐 ▲

<가로 열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7	27	24		
		25			26		

1. 유대인의 절기 하나로 가을에 지킴(출 34:21~24).
2. 알맞게 조절함(갈 5:22~24).
4. 아구스도, 디베료 등의 직함(마 22:17).
5. OO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요 6장).
7. 말이나 소를 바르게 몰다(약 3:3).
9. 가버나움의 회당장(눅 8:40~48).
11.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OOO이심(요 12:1).
13. 인류 최초로 두 아내를 취한 자(창 4:18~23).
15. 이사야는 유다 백성이 물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앗수르의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을 예언함(사 8:5~7).
16. 기생 라합이 이 성에 살았음(수 2장).
19. 부지중에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민 15:24~27).
20. 햇빛(욘 8:16).
22. 엘리야는 흉년 때 이 곳 과부의 공계를 받고 지냄(눅 4:24~26).
24.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신 노아의 둘째 아들(창 9:20~27).

<세로 열쇠>

1. 예루살렘 성전 중수 기념 절기(요 10:22).
3. 바울에게 장차 전 세계에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한 사람(행 11:28).
6. 입술을 OO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잠 10장).
8. 예레미야를 붙잡아 방백들에게 끌고 간 문지기(렘 37:12~15).
10. 일체의 비교, 대립을 초월한 것(단 8:4).
12. 예수님께서 이 곳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해 주심(눅 8:26~39).
14.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한 OO의 피를 죽을 자 가운데서 이끄심(히 13:20).
15. 에브라임에 있던 성읍(수 18:8).
16. 유덕한 OO는 존영을 얻음(잠 11:16).
18. 자식을 낳아 기르는 수고(사 54:1).
19. 이 날 유대인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며 속죄하였음(레 23:26~32).
21. 41년간 치리한 유다의 제 6대 왕.
23. 일부러 범하는 죄(시 19:13).
25.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자(시 19편).
26. 예수님께서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곳(막 8:22~26)
27. 예수님께서서 세례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리어 가신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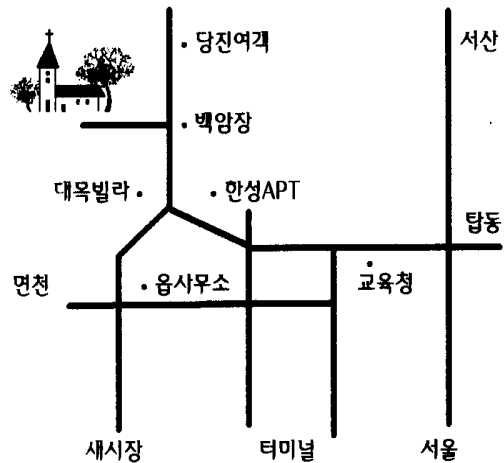
♣ 경답을 작성하여 12월 17일까지 제출하면 추첨하여 시상함

영성을 위한 10가지 충고

▶ 교회를 찾아오시는 길 ◀

▲ 얽힘을 해결하기 위한 10가지 충고 ▲

1. 명령하는 듯한 말을 쓰지 말라.
2. 비판보다 칭찬거리를 먼저 찾으라.
3.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연습을 시작하라.
4. 그의 반항을 존중하라.
5. 싸우지 말라.
6. 상대방이 틀렸다고 마구 꾸짖지 말라.
7. 큰소리가 "NO"라는 뜻이 아님을 알라.
8. "나는 당신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를 압니다" 라는 말을 애용하라.
9. 우연가 질문하고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라.
10. 그 상대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라.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 황대구 김옥자 성도님

주복카 인터리어를 운영하는 이병철 권철남, 최성재 성도님의 전도로 오셨습니다. 김옥자 성도님 고향이 중국인데 황대구 성도님과 결혼함으로 이곳에 오셔서 생활하십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송산면 동곡리에서 "만리장성" 중화요리를 운영하며 시어머니와 딸 문영(2세)이와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정착을 위해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을야외예배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 배병철 홍성아 집사님

교회를 결정함에 있어 이영길 집사님의 많은 권면이 있었지요, 오셔서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배 집사님의 가족사랑은요!! 지금 군에 가 있는 무성(21세)과 고등학생인 한(17세)이 있어요, 두 분이 살고 있는 곳은 송악면 무수리구요, 자녀들이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언제나 염려스럽거든요,, 믿음 안에서 바르고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의 기쁨과 자랑스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주일예배를 마치고>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 권복순 집사님

교회 분위기가 가족같고 편안하고 포근하다고 말씀하시는 권복순 집사님은 원재욱 집사님의 인도로 오셨어요, 지금 설악가든 앞에 있는 대운빌라 102호에서 남편 김영남 선생님과 아들 정연(14세), 딸 소현(11세)과 함께 살고 계시지요,

은 가족의 구원과 안정되고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찬양대회>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 현덕규 집사님

강난순 권사님의 인도로 오신 집사님인데요, 아들 손정인(18세), 딸 미연(17세)이가 있습니다, 현재 지석APT 103동 105호에 사신대요, 그리고 정인이가 이번 수능시험을 보았거든요,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그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현 집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네요,, 일,,,자녀들 건강, 이,,,신앙생활 잘 할수 있도록, 삼,,,먼저 살던집 전세 나가는 것



인터넷은 무엇인가

◆ 인터넷의 정의

인터넷은 전 세계의 크고 작은 컴퓨터 망들이 연결되어 탄생되었다. 단순히 2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서로의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놓기만 해도 컴퓨터 네트워크가 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컴퓨터 네트워크(Computer Network)는 개개의 컴퓨터들이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놓은 연결된 망 자체를 말한다.

컴퓨터 네트워크가 구성된 상태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일을 바로 컴퓨터 통신(computer Communication)이라고 한다. 이러한 컴퓨터 네트워크는 작게는 사무실 안에서 형성이 되며 사무실 안에 네트워크는 건물 또는 그보다 큰 규모의 네트워크에 연동되어 보다 큰 규모의 네트워크에 포함된다.

이렇게 네트워크의 규모는 지역적으로 연결되어 LAN(Local Area Network)를 형성하게 되고 LAN과 LAN이 상호 연결되어 인터넷워킹(internetworking)이 이루어져서 보다 규모가 큰 MAN(Metropolitan Area Network)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MAN이 다시 모여서 보다 큰 규모의 네트워크인 WAN(Wide Area Network)을 형성하게 된다. WAN은 거의 한 나라의 중추를 이루는 커다란 규모의 네트워크이다.

세계 곳곳에서 제각각 형성되어 성장해온 네트워크들은 급기야 국경을 초월하여 나라와 나라의 커다란 네트워크망을 연결하게 되었다. 결국 오늘날에 와서는 해저 광케이블로 연결하기도 하고 인공 위성을 통하여 무선으로 연결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구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게 되었다. 이렇듯 세계의 크고 작은 컴퓨터 네트워크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인터넷(Internet)인 것이다.

신앙 유머

제목 : 농담

곧 무너져 내릴 듯한 위험한 다리를
어느 유대인이 건너가고 있었다,
"하나님, 이 다리를 아무 일 없이 건너가게 해 주시면
5달러를 기부하겠습니다."
기도 덕으로 무사히 다리를 다 건너가게 되자
유대인은 다시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아무래도 5달러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절반이나 하든지 아니면 그냥 눈감아 주시면 어떠실지
요."
마침 그 때 다리가 심하게 흔들렸다,
깜짝 놀란 유대인은 다급하게 말했다,
"아이구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시사상식

* 부채비율?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중 부채가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무구조 특히 타인자본의존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영지표다.

부채비율은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구한다.

상환해야 할 타인자본(부채총계)에 대해 자기자본이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가를 나타내는 이 비율은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다. 부채와 자본의 구성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재무구조' 또는 '안전성비율'이라고도 한다.

* 일반 최상위 도메인 종류?

일반최상위도메인(gTLD)은 --> 인터넷 초창기부터 사용되어 온 com, net, org, edu, gov, mil, int 등 7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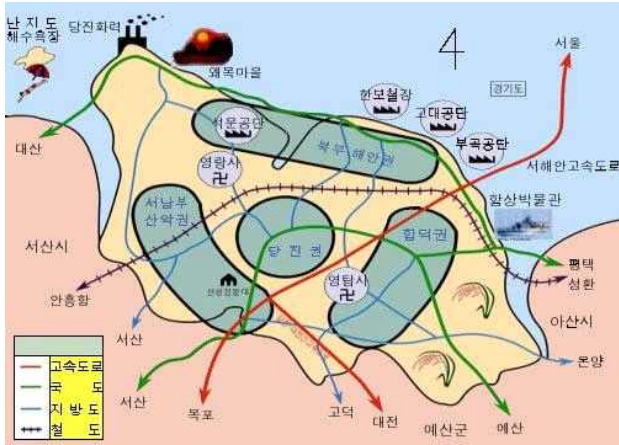
- com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회사
- edu :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 기관
- net : 네트워크에 관련된 기관
- org : 비영리 목적의 기관이나 단체
- int : 유엔등의 국제기관
- gov : 미국연방정부 관련 기관
- mil : 미국연방정부 군사기관

이 중 gov, mil은 미국내에 있는 기관만이 등록하여 사용 가능하며, int는 유엔 등 국제기구가 등록하여 사용한다. 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기관이 사용 가능한 도메인은 com, net, org, edu 3개이다.

--> 2000년 10월 17일 새로 채택된 도메인은 biz, name, info, pro, museum, coop, aero 등 7개.

- biz : 기업
- name : 개인들이 사용
- info : 종합적으로 사용
- pro : 전문가
- museum : 박물관
- coop : 협회나 조합
- aero : 항공사 전용

지역정보



당진군 4대 권역별 개발 구상도

당진권

- 북부 해안지역 신산업지대 조성에 따른 배후 지원도시 개발
- 배후 신도시를 당진읍과 연계하여 당진지역 생활권의 중심도시로 육성
- 신산업 지대 및 해안 관광 벨트와 연계한 『공업+관광』 지역으로 개발
- 석문 국가 산업단지과 아산 산업국가단지 개발에 따른 배후 주거단지 조성

합덕권

- 평야지대를 배경으로 한 미래농업 생산지역으로 개발
- 지역특화 작목의 육성으로 농업소득 증대 도모
- 합덕읍 도시 구도의 개편으로 주변 농업지역에 대한 중심 도시로 육성

북부해안권

- 국제교역 전진기지 및 신산업지대 조성과 관광루트 육성

서남부산악권

- 자연 경관을 이용한 문화 휴식공간

도로망의 확충

- 서해안 고속도로(행담도 ~ 정미 대운산) : 22km, 4~6차선
- 대전 ~ 당진간 고속도로 : 9.7km, 4차선(2002)
- 국도 32(합덕 ~ 당진 ~ 서산) 4차선 확포장
- 국도 38(신평 ~ 가곡 ~ 대산) 4~6차선 확장
- 군도 1호선 4차선 확포장 (당진 ~ 면천 I.C)
- 당진 ~ 대산간 산업도로 : 15.0km, 4차선
- 내륙 산업도로(송악I.C~송산~고대~대호지) : 26.5km, 4차선
- 내부 순환도로(고대~당진읍~송산 38호선 국도) 28.0km
- 외부 순환도로(석문~대호지~면천~우강, 신평 국도 38호선) : 50.5km
- 성환, 안흥간 산업철도 건설 건의 (당진 구간 36.5km)
- 여객항로 개발 : 도비도 ~ 난지도 ~ 한진 ~ 행담도

크리스마스 전통과 관습

크리스마스과 함께 오래도록 지켜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이 있다. 촛불예배라든가,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빨간 열매가 달린 초록색 담장(Holly)이라든가, 신타클로스 할아버지, 마굿간 등이 그것이다. 이들 관습의 많은 부분이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많다. 이것은 본래 12월 25일이 이교도의 축제일인데 이것을 기독교의 축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교도의 전통과 관습이 기독교의 관습에 그대로 남아 있는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 장작

고대 Scandinavia에서는 동짓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큰 화로에 불을 붙이는 전통이 있었다. 이것은 동지까지 해가 짧아지다가 이 날로 부터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여 "태양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다. 태양이 없는 겨울을 지내는 북극지방의 사람들에게 태양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심장한 일이다. 이 전통이 영국에 와서는 큰 장작(크리스마스 장작 또는 Yule log)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벽난로(fire-place)에서 불을 붙여 밤새도록 태워 방도 따뜻하게 하고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도 돋구는 풍습으로 전해져 왔다.

촛불예배

예수는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참 빛이시며... 그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고 기록하고 있다. 천주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전날밤에 자정 촛불 미사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상의 빛"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등장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개신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자정 촛불예배를 별로 지키지 않는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외에 촛불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경우는 고난주간의 세족 목요일 저녁예배이다. 이 경우의 촛불예배는 크리스마스의 경우과는 정 반대이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밝았던 세상이 다시 어두워지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철언을 한 마디씩 읽고 명상하든가 또는 합창단이 노래하고

나면 촛불을 하나씩 꺼 나가는 것으로 명상이 계속되는 동안 촛불은 둘 셋 넷... 꺼져 종국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촛대의 불만 남기고 어두운 가운데에서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개신교회 중에서는 새문안 교회가 매년 크리스마스 세족 목요일에 촛불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촛불예배는 1982년에, 고난음악 촛불예배는 1983년에 시작한 것이다.

상록 담장 넝쿨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를 파란 담장 넝쿨로 장식하고, 또 그렇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받는다. 이와같은 풍습은 북 유럽의 비기독교인들의 전통이 역시 영국에 전해진 것이다. 아리안 인종의 한 분파로 Ireland와 Wales 및 Scotland에 사는 켈트족과 독일족들은 동짓날 축제 때가 되면 상록 담장넝쿨을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숭배했었다.

이 식물을 숭배하게 된 이유는 태양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때 쓰신 가시 면류관이 담장 넝쿨로 만들어졌다고도 한다. 전설에 의하면 이 담장 넝쿨은 본래 흰 열매를 맺는 식물이었었는데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눌러 씌움으로 예수의 머리에서 피가 솟구쳐 나와 빨간 열매로 변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크리스마스 때 담장넝쿨로 화환을 만들어 교회와 집문에 붙이는 관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면류관의 상징이다.

크리스마스 트리 (Christmas tree)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이 독일에서 Martin Luther가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이야기이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그 밑에 상록수가 서 있는 모습이 Luther의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는 상록수의 끝이 뾰족하여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같이 보여 이와같은 나무를 준비하여 자기집 방에 세우고 거기에 별과 촛불을 매 달아서 장식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또 다른 이야기에 의하면 상록수는 이교도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상징"이었다는 것이다. 이교도들



의 "생명의 상징"인 상록수와 기독교인들의 생명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진 전통이 "크리스마스 나무"라는 것이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뚱뚱하고 배가 볼록할 뿐 아니라 기분 좋게 "하! 하! 하!"하고 웃

는 흰 수염이 있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4세기에 소아시아 지방의 조교로 있었던 좋은 일을 많이 행한 성 니콜라스(St. Nicholas)를 의미한다고 한다. 선물을 나누어주는 산타클로스의 풍습은 성 니콜라스가 평상시 불쌍한 어린이들에게 많은 선물을 나누어 준 것을 기념하는 관습이다.

처음엔 소아시아에서 시작된 것이 구라파에 전해졌고, 그것이 화란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미국으로 이민해 감으로써 미국에까지 전파되었다고 한다.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배달하면서 "호! 호! 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즐겁게 외치는데, 이것은 미국작가 Washington Irving이 산타클로스를 항상 웃는 즐거운 인물로 묘사한 {Visit from St. Nicholas}를 1822년 Clement Moore가 작곡함으로("T'was the Night before Christmas") 시작되었다. 산타클로스가 흰털이 달린 빨간옷과 검은 벨트를 두르고 긴 고깔모자를 쓴 모습은 미국 만화가 Thomas Nast가 1863년에 그린 만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크리스마스 선물교환

로마에서 신테날리아로 지키는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는 흥겹게 지내는 계절이었다. 이때는 집안을 상록수나 상록 담장넝쿨, 그리고 촛불로 장식하고 선물을 어린이들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종들에게 주는 풍습이 있었다. 이와 같은 풍습이 크리스마스에까지 영향을 미쳐 오늘날도 선물을 교환하고 있다. 또한 동방박사가 아기예수를 찾아와 황금, 유향, 몰약을 선물로 드린 것을 본받아 기독교인들 간에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생겼을 것이다.

마굿간의 설치

크리스마스 때 한국의 개신교회 중에서 마굿간을 만들어 전시하는 교회는 별로 없다. 그러나 명

동성당에 가면 마굿간이 해마다 설치됨을 본다. 거기에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옆에는 요셉이 서 있고, 양과 짐승들도 있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엄숙하게 경배를 드리고 있다. 교인들은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간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철이 되면 여기저기서 마굿간을 구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마굿간은 13세기 아씨씨의 성 프랜시스(St. Francis of Assisi)가 처음 시작하였다고 한다. 성 프랜시스는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경축하기 위하여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것도 권장하였다. 여기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시작되었다.

기타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Lord of Misrule"이란 것이 중세 크리스마스 때 행해 졌었는데 이것은 평민 또는 대 군주의 노예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 그가 군왕이 되어 크리스마스 축제 기간 동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게 하는 전통이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의 대혼란을 일으키곤 했는데 이 전통도 신테넬리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신테넬리아 축제기간에는 모든 노예에게 그들의 주인과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였었다.



크리스마스의 이색 풍경

◆영국의 크리스마스 - 양말걸기

크리스마스때 아이들이 선물로 가득 채워지길 기대하며 양말을 걸어두는 풍습은 바로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말리려고 벽난로에 매달아둔 양말에 산타클로스가 굴뚝을 타고 내려오다 떨어뜨린 금화가 담겨지면서부터 양말을 걸기 시작했다고.... 믿거나 말거나.(Believe it or not)..

◆하와이의 크리스마스

소나무가 귀한 하와이에서는 소나무대신 야자수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모양이다. 하와이 아이들이 그린 크리스마스 그림을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양초, 별, 천사같은 장식보다 코코넛, 바나나, 홀라를 추는 인형소녀, 여름 슬리퍼 심지어는 서핑보드까지 보게 된다.

성지순례

1. 번영된 애굽



B.C 2551~2528 사이 만들어진 것으로 밀변 의 길이가 220m, 높이는 145m에 달한다. 이 피라밋은 약 250만~300만개의 돌로서 쌓여 졌다. 큰돌은 15~30t 까지 무게가 되 는 돌들이다. 이것을 건설하는데 10만 명의 사람이 20년 동안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모세가 자라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애굽의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는 데 동원된다.

2. 애굽의 문화



사진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들은 영혼이 집이라고 한다. 비록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초라하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좋은 집에다 모시는데 그것은 사람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좋은 집에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후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7년 동안 심한 기근으로 인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되는데(창 12:10~20)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이집트)에서 430년동안(창 15:7~18) 노예로 살게 되었다. 또한 이 애굽은 예수

님께서 아기 때 피신하신 곳이 기도 하다(마 :13~ 23). 현재 카이로의 인구는 50만 명, 애굽사람의 후예들이 살고 있다.

3. 아기예수 피난교회



예수님 일가가 거처했었다는 동굴 위에 세워져 있는 아기예수 피난 교회이다. 이 교회는 4세기말 또는 5세기 초에 세워졌다. 본당 옆으로 2개의 복도와 3개의 지성소가 있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 중에 가롯유다를 상징하는 기둥은 붉은색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4. 출애굽(마라의 쓴 물)



가데스 바니아 : 사막의 오아시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 쓴물을 단물로 변한 곳. 솔로몬의 요새. 제1성전 파괴 전까지 유대인들의 정착지 현재의 주민들 (베드인 민족)모두는 이슬람신자들이 살고 있다.

<사진에 보이는 나무가 종려나무임 >

♣ 성지순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언제 : 2001년 4월경(약 10일간)
- 요금 : 1,200,000원~1,500,000원
- 신청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 순례국가 : 이집트, 이스라엘
- 지혜 : 참가자가 많을수록 경비를 줄일 수 있음.
- 문의 : 교회